



경제자유도와 경제성장 · 삶의 질 국제비교

SUMMAR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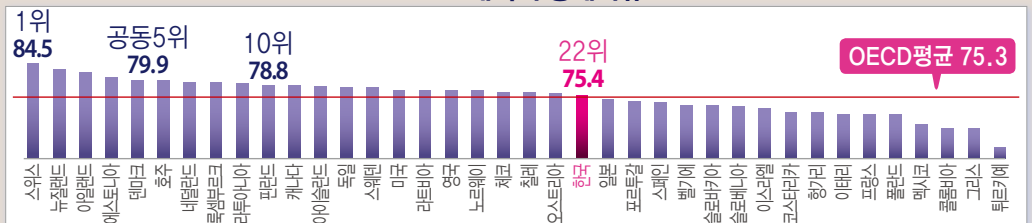
- I 현황** 한국의 경제자유도^{주1)}는 OECD 38개국 중 22위^{주2)} 불과
- II 경제자유도와 경제성장 및 삶의 질**
 - 경제성장** 경제자유도 증가 시 인적·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
 - ❖ 경제자유도 1% 개선되면 경제성장률 0.1%p 상승
 - ❖ 韓, 경제자유도 OECD 10위인 핀란드 수준 개선 시 성장률 0.5%p 상승
 - 삶의 질** 경제자유도는 환경, 건강, 교육 등 삶의 질 개선에 기여
 - ❖ 삶의 질(BLI: Better Life Index)^{주3)}, 경제자유도 top10 국가가 평균 7.3 vs. 한국 5.4
- III 시사점** 성장률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,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자유 확대 필요

* 주1) 각국의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(Fraser Institute)
 * 주2) Heritage Foundation(2022), Fraser Institute(2021)의 경제자유도를 산술평균한 점수 기준
 * 주3)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, 교육, 환경, 삶의 만족도 등 11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(OECD)

OECD국가 경제자유도 현황

■ 경제자유도, 스위스(1위) > 덴마크(5위) > 핀란드(10위) ➡ 한국(22위)*
 * 한국의 경제자유도 순위는 남미권 국가인 칠레(20위) 보다도 낮은 수준

OECD 38개국의 경제자유도



* 주1) Heritage Foundation, Fraser Institute 2개 기관의 평균 경제자유도 기준
 * 주2) 덴마크와 호주는 공동 5위, 이하에서는 편의상 5위 국가로 덴마크만 기술
 * 자료: Heritage Foundation(2022), Fraser Institute(2021)

참고

기관별
주요 국가별
경제자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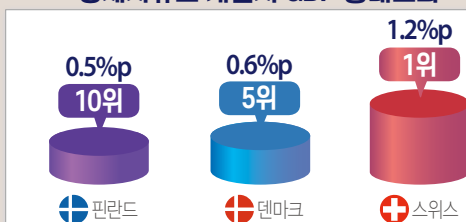
	스위스	뉴질랜드	아일랜드	에스토니아	덴마크	한국
헤리티지	84.2	80.6	82	80	77.7	74.6
프레이저 ^{주1)}	84.8	85.6	82.1	81.1	82	76.1
평균 점수	84.5	83.1	82.1	80.6	79.9	75.4
평균 순위	1위	2위	3위	4위	5위	22위

* 주: Fraser Institute의 경제자유도는 10점 척도를 100점 척도로 환산
 * 자료: Heritage Foundation(2022), Fraser Institute(2021)

경제자유도와 경제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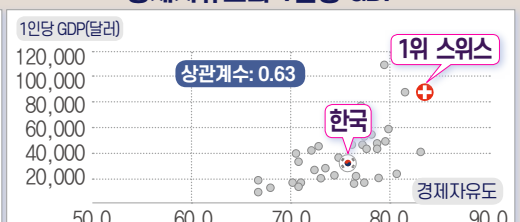
■ 한국 경제자유도가 OECD 10위(핀란드) 수준 개선 시 GDP증가율 0.5%p, 5위(덴마크) 수준으로 개선 시 0.6%p 증가(한경연, '22.8월)*
 * 경제자유도 1% 개선시, GDP 증가율 0.1%p 상승

경제자유도 개선시 GDP 증대효과



* 자료: Heritage Foundation(2022), Fraser Institute(2021), OECD(2021)

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



한국
경제자유도,
OECD 22위로
중하위권

경제자유도가
보장되면 높은
경제수준 달성

경제자유도가 높으면 경제에 긍정적인 이유

■ 경제자유는 ① 인적역량 ② 기술진보를 촉진하여 ③ 생산성 향상에 기여

“경제의 지속성장은 노동, 자본 같은 양적 투입보다 인적자본, 기술력 같은 질적 변화에 달려있다”

(폴 로머('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), '혁신성장,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' 세미나 중)

경제자유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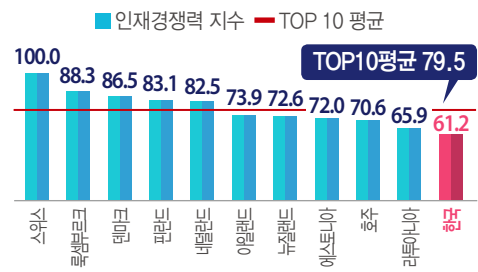
why?

1 인적역량 교육*·노동규제 완화로 신산업 인재양성·해외인재 유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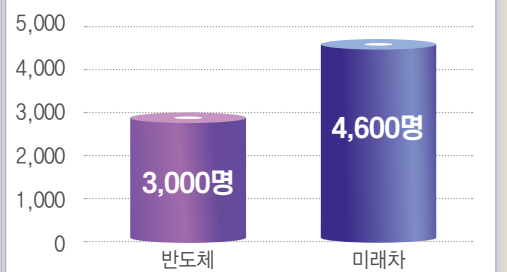
* 교육 규제 완화의 인적역량 저해 예시: 수도권 입학 정원제에 따른 신산업 학과 신설 제한 등

■ 인재경쟁력 지수('21년): 자유도 top10 국가 평균 79.5 vs. 한국 61.2

인재경쟁력: 자유도 TOP10 vs. 한국



국내 신산업 분야 인력부족 현황(연간)



* 주: 인재경쟁력 지수는 국내인재 양성, 해외인재 유치, 근로자 역량을 종합하여 산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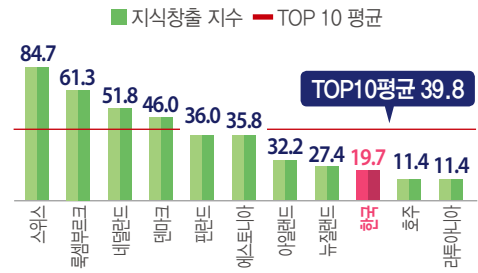
* 자료: IMD(좌, '21년), 한국경제연구원(우, '22.7월)

2 기술진보 기업규제 완화로 혁신성과·기업활력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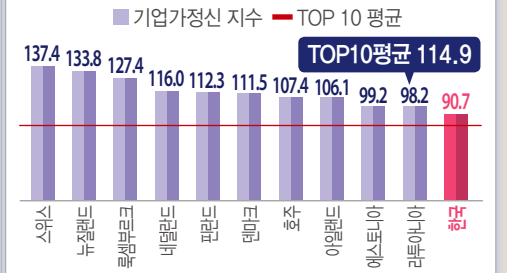
■ 지식창출 지수*('21년): 자유도 top10 국가 평균 39.8 vs. 한국 19.7

* R&D 활동 등에 따른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창출 정도 측정(특허 성과, 논문의 질적 수준 등 평가)

지식창출: 자유도 TOP10 vs. 한국



기업가정신: 자유도 TOP10 vs. 한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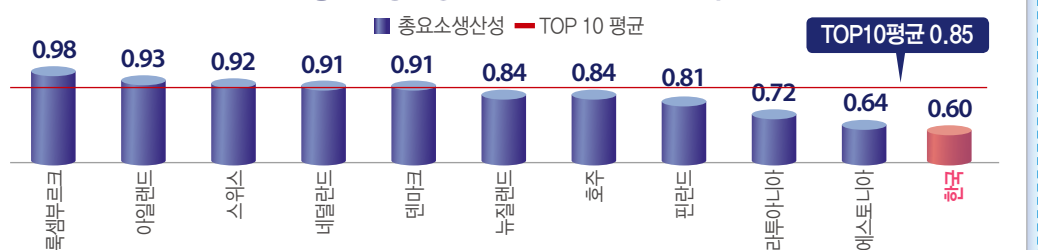
* 주: 기업가정신 지수는 기업활력, 제도환경, 기업에 대한 인식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산출

* 자료: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좌, '22년), 전국경제인연합회(우, '21년)

3 생산성 인재혁신·기술혁신으로 생산성 향상

■ 총요소생산성('19년): 자유도 top10 국가 평균 0.85 vs. 한국 0.60

총요소생산성: 자유도 TOP10 vs. 한국



* 주: 각 국가별 총요소생산성은 미국 총요소생산성을 1로 두었을 때의 상대적 수준

* 자료: Penn World Table 10.0('21년)

경제자유도 높은 국가,
인재경쟁력 우월

R&D성과·기업가정신도
우위

인적경쟁력과
기술진보로
총요소생산성 향상

경제자유도와 삶의 질

경제자유도는 삶의 질 개선에 기여

■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 지수(BLI) 상승

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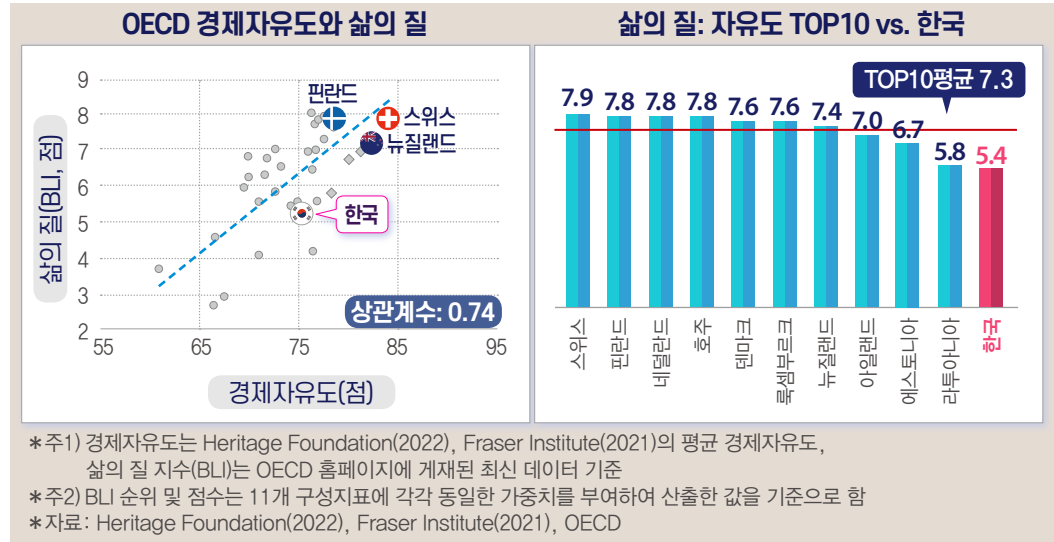
OECD 삶의 질 지수 (BLI, Better Life Index)

삶의 질에 기여하는 11개 지표를 0~10점으로 산정하여 각국의 삶의 질을 측정

*물질적 조건(①주거, ②소득, ③일자리), 비물질적 조건(④공동체, ⑤교육, ⑥환경, ⑦정치참여, ⑧건강, ⑨삶의 만족도, ⑩안전, ⑪일과 삶의 균형)

한국은 주요국 대비 삶의 질 크게 떨어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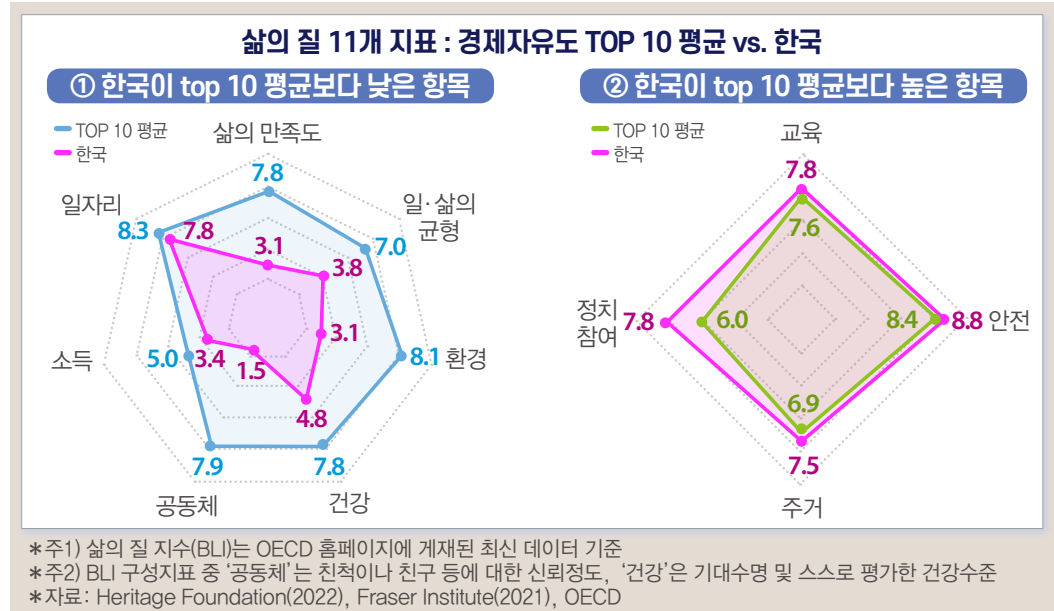
■ 삶의 질, 경제자유도 top10 평균은 7.3점인데 비해 한국은 5.4점에 불과



한국 삶의 질 지수 구성지표 대부분 비교열위

■ 한국, 삶의 질 11개 지표 중 7개에서 경제자유도 top 10 보다 낮은 수준

- 특히 삶의 만족도, 일과 삶의 균형, 환경 부문은 한국이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에 비해 크게 미흡
- 반면 교육, 안전, 주거, 정치참여는 한국이 비교우위



쟁점과 체크포인트

- ✓ 경제자유도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옴
- ✓ 규제개혁, 노동시장 유연화, 법인세 감세 등으로 OECD 중하위권인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제고시킬 필요
 - * "경제자유도는 정부지출 증가나 규제 신설보다 노동법규 완화, 투자 촉진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, 경제자유도를 확대한 국가들이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" (<'22년, Heritage Foundation)

■ 내용문의: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(02-3771-0320), 추나현 책임(0173), 윤병완 연구원(0446)



글로벌 싱크탱크 FOCUS



The Growing Importance of Economic Freedom

경제자유도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

Drew Bond, Anthony B. KIM
2022. 2월



<https://www.heritage.org/environment/commentary/the-growing-importance-economic-freedom>

SUMMARY

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환경오염 개선

- ❖ 경제자유도 상위 국가들은 경제수준이 높아 친환경 기술에 투자할 자원 풍부
 - * 해리티지 경제자유도 지수와 예일대 환경보호 지수간 상관관계 0.65
- ❖ 경제자유도 개선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,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로 연결

중국의 환경오염도 낮은 경제자유도로부터 비롯

- * 중국 CO2 배출량(107억 톤) 세계 1위 · 경제자유도 세계 158위(해리티지, '22년)
- ❖ 중국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 지급
 - * 국가별 화석연료 보조금(GDP 대비 %): 중국 14.7, 한국 4.2, 일본 3.3, 미국 3.1(IMF, '21년)
- ❖ 중국은 토지의 사유화가 금지되어 사용자의 토지훼손 등 '공유지의 비극'에 취약



Lessons from Turkey on the evils of high inflation

인플레이션의 해악 : 튀르키예의 사례

The Economist
2022. 7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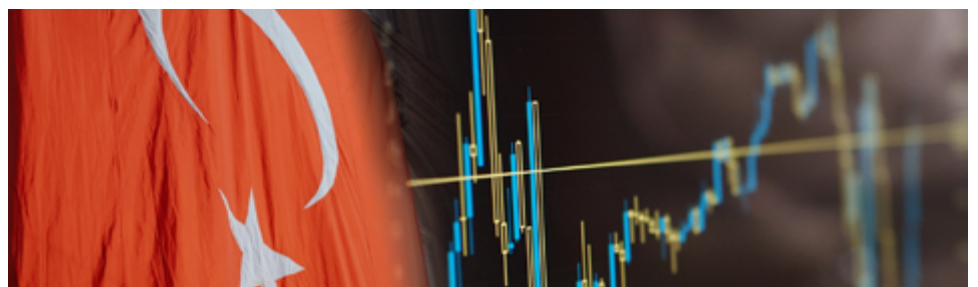
SUMMARY

정부의 기준금리 인하로 6월 튀르키예 소비자물가 80% 가까이 폭등

- ❖ 튀르키예는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에 역행,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
 - * 튀르키예 기준금리 추이: 19.0%(21.8월) → 16.0%(10월) → 14.0%(12월 ~)
- ❖ 금리인하 여파로 리라화 가치 폭락,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, 물가폭등
 - * 리라화/달러 환율 전년대비 약 107%(8.65('21.8.10일) → 17.93('22.8.10일)) 상승

살인적인 물가상승으로 기업활력 저하되고 소득불평등 심화

- ❖ 기업은 물가변동 극심으로 수익성 예측이 불가하여 장기투자 보류
- ❖ 가격시스템 붕괴로 기업 협력사·거래처 간의 일반적인 거래활동도 차질
- ❖ 가계의 경우 인플레이션 헤지(부동산 투자 등) 수단이 없는 저소득·중산층에 피해 집중



<https://www.economist.com/leaders/2022/07/21/lessons-from-turkey-on-the-evils-of-high-inflation>